두손 모아 수능 기원…아픈 무릎 참고 '간절한 108배'

오늘 수능…무각사 기도회 가보니

불자·학부모들 수능 대박 염원
직장인 부모 점심시간 짬내 절하고
손주 위해 할머니 노구 이끌고
불교 안 믿는 부모도 애절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시험 잘 치렀으면"

수험생 학부모들이 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서 자녀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아들이 수능 대박 난다면 내 무릎이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지역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는 예불시간에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무각사 1층 '지장전'과 2층 '대적광전'에는 수십여명의 학부모들이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다. 법당에서는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금강반야바라밀경' 낭송이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무각사는 기도 명소로 널리 알려져 매년 수능 때마다 학부모들이 찾아온다.

학부모들은 무릎과 허리가 뻐근할 만도 하지만 누구 하나 힘든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붙잡고 간절함을 담았다.

고3 아들을 위해 3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각사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문은심(여·54)씨는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법당 안 부처상 앞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다.

문씨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 108배를 올리려고 무릎에 스포츠밴드까지 착용하고 무각사를 찾았다. 절을 마친 문씨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문씨는 "지난 30일간 아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 아들을 생각하며 절을 했더니 오늘따라 무릎이 아프지 않다"며 "긴장되겠지만, 떨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발휘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바람에 찾아온 할머니도 있었다.

큰아들과 큰딸의 손자·손녀가 올해 수능을 본다는 배수애(여·77)씨는 다리가 아파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기도를 이어갔다.

배씨는 "절을 하고 싶었지만 허리와 무릎이 아파 그러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할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손자 손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으니, 이번에 수능을 잘 볼 것이다"고 웃어보였다.

직장에 다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잠깐 절에 들린 학부모도 있었다.

김모(여·49)씨는 기도회가 끝난 오전 11시 30분께 무각사에 들렀다. 조용히 방석을 깔고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고 밖으로 나섰다.

김씨는 "내일 아들이 수능이라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기도를 하러 왔다"라며 "평소 절에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애타는 마음을 달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무각사에 들렀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절을 하는 동작에 신경을 쓰던 최씨는 "첫째 딸은 이미 수능을 봤고 올해는 둘째 아들이 수능을 본다. 두번째로 겪는 수능인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걱정이 크다"면서 "아들이 긴장하지 말고 잘 봤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주변에서 학부모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다는 소리에 기도를 끝낸 시민들은 가방에서 초콜릿 등을 꺼내 전달하며 자녀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도 있었다.

김모(여·52)씨는 "코로나19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참 많았다. 큰딸이 수시를 많이 안 쓰고 정시에 '올인' 한다는데, 걱정도 되고 마음도 무거워 무각사를 찾았다"라며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히 실력발휘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무각사에서 수능기도회를 집회한 스님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수능 기도를 드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확연히 줄었지만 학부모들의 기원은 여전하다"면서 "올해도 모든 고3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 섬 지역 수험생 올해도 뭍으로 '원정 수능'

신안·여수 등 6개 지역 고3생들
교사와 함께 배 타고 목포·여수로

전남 섬 지역 고3 수험생들의 '원정수능'은 올해도 계속된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안 도초고·하의고, 진도 조도고, 여수 여남고, 완도 노화고·금일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다.

이날 원정에는 수험생 154명과 인솔교사 9명이 동행했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신안 도초고 학생 65명(남학생 29명, 여학생 36명)은 도초항에서 인솔교사 5명과 함께 쾌속선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로 향했다.

목포에 도착한 이들은 여객 터미널에서 수능 수험표를 배부받고, 학부모들이 준비한 간식 등을 먹으며 수능 대박을 다짐했다.

65명의 도초고 학생 중 목포에 거주지가 없는 학생 15명은 인솔교사와 함께 목포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고사장으로 향한다.

학생들은 숙박업소에서 오답노트와 참고서로 최종 마무리를 준비한다.

수능일인 17일에는 부모님이 싸주는 도시락 대신 점심으로 소불고기 등이 포함된 도시락을 받을 예정이다.

인솔을 맡은 김주헌 도초고 3학년 학년부장은 "집에서 엄마가 싸주는 따뜻한 도시락보다는 못하겠지만,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반찬으로 준비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부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섬 지역 학생들의 원정 수능이 반복되는 이유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수능 시험지를 운송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섬 지역 교사들은 원정길에 나서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섬 수험생을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인상돼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으로 사용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치매 증상 80대 노인 실종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노인이 집을 나서진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남부경찰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육교 인근 논에서 A(여·87)씨가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며느리와 함께 있다가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평소 동네를 돌고 들어오곤 했던 A씨가 이날은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과거에도 집을 나서 몇 차례 실종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적을 확인해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집을 나선 A씨는 조선대와 전남대, 무등경기장, 신가사거리를 지나 광산구 임곡동까지 15시간 동안 40여㎞를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운 날씨에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1년간 휴대전화로 여교사 8명 몰카…고교생 검찰 송치

1년여 동안 휴대전화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산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8) 군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산구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은 지난해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를 교탁 밑에 숨겨 여교사 8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불법촬영물 150여 건을 확인했다. 다만 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수사로 A군의 범행이 드러나자 학교측은 A군을 퇴학조치 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토지 매매 (담양)

▶ 담양 프로방스 앞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